



2016년 11월 2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1월 07일(月) : 주간회의(10시)
- 11월 09일(水) : 호남인물 사료 읽기 - 노사 기정진 연보(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2호)
- 11월 10일(木) : 전북지역 의병 사료 읽기 - 최제학 습재실기(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11월 11일(金) : 법인업무보고 / 7차 운영위원회의

■ 연구원 행사

○ 연구원 소모임 영화 관람 안내

3월 1일 귀향 단체 관람에 이어 '자백'과 '무현, 두 도시 이야기' 회원 번개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7일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세요. 각 영화별 5인 이상 신청시 관람합니다.

<영화 일정>

11월 9일(수) 19시	11월 13일(일) 18시 20분
- 영화제목 : 무현, 두 도시 이야기	- 영화제목 : 자백
- 상영장소 : 전주시네마타운 (고사동 영화의 거리 프리머스 근처)	- 상영장소 :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고사동 전주중부교회 근처)
- 3시간 무료주차 가능	- 전주 주차장, 옥토 주차장 3시간 무료주차 가능
- 관람 후, 간단한 저녁 나눔	- 관람 후, 간단한 저녁 나눔

○ 연구원 소모임 인자요산 답사 안내

인자요산에서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에 위치한 옥출산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옥(玉)이 많이 난다하여 옥출산이라 불려 온 이 산은 순창의 남쪽 맨 끝자락 섬진강 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상 황룡이 섬진강으로 뛰어 드는 황룡입연(黃龍入淵) 형상 또는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갈용음수(渴龍飲水) 형상입니다. 산 정상에 서면 일제시대 순창을 거쳐 담양 광주로 이어질 철로를 만들다 해방으로 멈춘 흔적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산의 높이가 300미터가 되지 않지만 바위가 많아 왕복길에 약 2시간 이상 걸리는 “인자요산” 사상 최고의 난코스입니다. 일일 예상 강수량 50mm 이내일 경우 눈·비가 오더라도 11월 19일 (토) 9시에 연구원에서 출발합니다. 전주에 도착예정 시간은 오후 5시경입니다. 연구원에서 차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 44회 문화강좌 실시

지난 토요일(2016.11.05.) 오후 4시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문화강좌가 있었습니다. 서동주 교수님(서울대 HK)의 “帝都 도쿄의 ‘불온한’ 조선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연구원 소식

○ 이규수 운영위원 장녀 혼인

: 이규수 운영위원의 장녀가 혼인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6. 11. 12(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CJ인재원 / 그랜드홀



CJ 인재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26 (필동2가 101-1) TEL 02-2280-3114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11월 02일(水)에는 '호남인물 읽기'의 일환으로 『노사 기정진 연보』를, 03일(木)에는 '전북의병사료 읽기'의 일환으로 최제학의 『습재실기』를 교재로 하여,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의가 연구원 201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1월 02일(水)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면암 최익현이 연재 송병선에게 보낸 편지를 강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11월 03일(木)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습재 최제학이 쓴 '병오거의일기(丙午擧義日記)'를 강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 목 18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靜夜思(정야사)

고요한 밤의 그리움

床前明月光(상전명월광)

침상 앞에 밝은 달빛

疑是地上霜(의시지상상)

땅에 서리 내렸나 했지

舉頭望明月(거두망명월)

고개들어 밝은 달 바라보다

低頭思故鄉(저두사고향)

고개숙여 고향생각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 감 상

-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돌던 어느 가을날이다. 향수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요한 밤이다. 깊은 정적 속에 이날따라 얼마나 밝고 환한 달빛이 내리비추는지, 침상 앞쪽이 환하게 빛난다. 지면에 반사된 달빛이 마치 서리라도 내린 양 하얗게 눈이 부신 불면의 밤이다.

무료한 마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밝은 달이 눈에 가득히 들어온다. 그리고 달님 위로 그리운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겹쳐진다. 모두가 그림고 보고픈 얼굴들이다. 저절로 눈물이 핑 도는, 그래서 저절로 고개를 떨구고 마는 달 밝고 고요한 한밤의 고향생각이다.